

# 진흥회 활동

## 강진구 회장 취임 기자회견



본회 강진구 회장은 지난 25일 중구 태평로 빌딩 태평로클럽에서 제12대 회장 취임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강회장은 IMF로 인한 경제위기가 전자·정보통신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종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적극적 도전 의지로 수출총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뿐이라고 피력하였다.

### 〈강회장 모두 발언〉

◀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이제 적극적 도전의지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 그것은 우선 자본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자본재와 부품을 국산화할 경우 환율이 아무리 올

라도 제품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수출을 통해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하이테크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지금보다 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진흥회의 IMF체제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IMF체제하의 올해 우리 전자산업은 내수의 극심한 불황과 살인적인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밖으로는 원화절하의 기회를 이용한 총력 수출체제를 구축하고 안으로는 규제완화 및 업계 공동사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우선 총력수출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과당경쟁 자제, 신시장 개척활동 강화, 우리 상품의 홍보강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지원 활동으로 올해의 수출목표인 472억 달러와 무역수지 163억 달러 흑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IMF 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업계 공동사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이른 시일내에 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 축소, 품질보증 기간의 법적 의무기간 단축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의 축소, 폐지를 추진하고 폐전자제품 재자원화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품표준화·공용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폐전자제품 리사이클링사업 등 업계간의 공동사업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에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업체의 창고에 쌓여 있는 불용 재고품 및 생산설비 등의 판매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전자산업 투자 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전자산업의 구조 조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 **전자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

첫째, 우리 산업계 공통의 문제이기도 한 환율안정과 금리인하, 자금시장의 원활화가 이루어져야 IMF체제의 경제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고금리 및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비용이 크게 오른 만큼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폐기물 예치금제도, 기술기준 확인증명제, 법적 품질보증 의무기간 등의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고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른바 선진국형 제도 즉 리콜제도·제조물책임법 등도 IMF체제 기간 동안은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

셋째, 국내시장이 극심한 불황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생필품화된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 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넷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자금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자·정보통신 등 수요가 많은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대학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TV의 조기방영 등을 통해 이른바 멀티미디어 산업발전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차세대 유망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우리 전자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당면과제로 우리 전자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위기가 왜 왔느냐를 정확히 알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한마디로 고비용 생산 구조에 맞는 가치있는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관이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정보통신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총력을 쏟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개발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 다음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원가 중 70% 이상이 부품·재료의 값이라면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원화가 크게 절하돼 있어 부품 국산화가말로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전자산업도 미

국·일본 등과 같이 기술집약적인 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품목구조가 고도화해 선진국형 전자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 **업계간 협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달리 기업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본회의 사업을 업계간 협력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구성·운영 중인 가전산업협의회 등 8개 협의회와 품목별·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세트업계와 부품업계간 그리고 동종업계 간에도 상호 정보교류 등을 통해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 91년부터 시작해 온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폐전자제품의 리사이클링 공동사업을 통해 폐전자제품의 재자원화 촉진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업계 공동의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로신고 대책반 등을 구성·운영하여 정부에 업계의 애로를 건의 하는 등 다각도로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자업계의 체산성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각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처분키 위해 「재고전자 부품 할인 판매전」을 지난 3.5~3.6일 본회 대회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판매전에 국내 전자4사는 물론 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부품의 목록 및 샘플을 전시하여 중소중견 전자업체의 구매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일부 중소·중견업체에서는 계측기기 등 장비의 판매의사를 타진하는 등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품의 경우 IMF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필요로 하는 업체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어 구매측에서도 매우 만족해 했다.

이번 판매전에서는 계약액이 22억에 이르며 상담액은 95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이러한 행사가 진흥회 주최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주최측에 적극적으로 사전홍보를 요청 하였다.

이번 판매전에는 삼성전자 등 17개사가 공급자로 참여하였고 구매자측에서는 170개사에서 250여명이 참가하였다.

「재고전자부품 할인판매전」 개최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철주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전자 제조업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본회에서도 업계가 조속히 어려움에서

전자부품구매계획세미나 및 극산화 대상 부품 전시회





〈4대 전자업체 올 품목별 전자부품 구매계획〉  
(단위: 억원, %)

품 명	합 계	내자규모		외자규모		
			비율		비율	
오디오	2,430	1,516	62.4	914	37.6	
VCR	7,087	4,381	61.8	2,706	38.2	
PC	데스크톱	9,492	4,315	48.6	4,877	51.4
	노트북	5,567	2,970	53.4	2,597	46.6
팩시밀리	5,399	2,871	53.2	2,528	46.8	
컬러TV	27,591	21,767	78.9	5,824	21.1	
모니터	29,611	21,741	73.4	7,870	26.6	
냉장고	8,942	7,847	87.8	1,095	12.2	
전자레인지	7,711	6,569	85.2	1,142	14.8	
세탁기	6,809	6,292	92.4	517	7.6	
청소기	1,689	1,478	87.5	211	12.5	
에어컨	6,072	4,681	77.1	1,391	22.9	
휴대폰	17,918	6,009	33.5	11,909	66.5	
교환기	2,190	1,035	47.3	1,155	52.7	
무선호출기	439	153	34.9	286	65.1	
CD롬드라이브	6,622	3,656	55.2	2,966	44.8	
코드리스폰	779	404	51.9	375	48.1	
캠코더	1,708	407	23.8	1,301	76.2	
프린터	8,806	4,143	47.0	4,663	53.0	

본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150여개 국내 주요부품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자 4사의 국내부품 구매계획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대우전자 등 4대 전자업체들이 올해 구매할 예정인 전자부품은 금액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4.4%가 증가한 15조 6천 8백원에 달했다. 이중 65.4%인 10조 2천5백원을 국내 부품으로 구매키로 하였는바 이는 지난해보다 4.2% 낮아진 것으로 전자제품이 갈수록 첨단·고기능화 하면서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분석돼 세트업체와 부품업체간 협력을 통한 핵심부품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보호법 개정관련 회의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지난 3월 4일 태광산업 LG전자, 해태전자, 삼성전자, 롯데전자 등 관련부서장들이 모여 소비자 보호법 개정과 관련 하여 가전업계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 전자의료기기 산업협의회 대표자회의

본회 전자의료기기 산업 협의회 대표자 회의가 지난 3. 11일 중외메디칼, 한신메디칼, 대화기기(주), 메리디안 (주)메디슨, 자원메디칼, 동아X-선기기 등 업계 대표자들이 모여 '97년사업실적과 '98사업계획(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해외전사회 참가와 관련 본회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업계간 공동이익사업에 대해 업계실무자들이 모여 협의키로 하였다.

---

## HOSPITALAR '98 참가업체 회의

---

본회 전자의료기기 산업 협의회에서는 국산전자의 의료기기 수출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브라질 쌍파울로에서 개최하는 HOSPITALAR '98에 대해 칼스메디칼, 디케이엠, (주)택산 등 9개사가 모여 공동관 운영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참가업체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관련 삼성물산 측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하였으며 특히, 인력지원, 통역, 회의일자 등을 집중지원 키로 하였다.

---

## 가전업계 현안문제 회의

---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3월 12일 본회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관련업체들이 모여 '98업무추진계획보고, 표준화사업, 리콜제도도입 등 정책변화에 신속히 대응키로 하였다. 특히 가전제품의 역수입 관세인하, 소비자보호법, 유선방송화질개선 등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

## 청소기 표준화 회의

---

본회 부품산업부에서는 지난 3월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청소기표준화 회의를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관련사들과 협의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기에 대해 차기 표준화 관련 과제를 발굴하여(대상과제 : 파워코드) 추진키로 하였으며 각사별 유럽수출모델에 적용할 파워코드의 국내 인증규격(VDE등) 획득업체를 각사별로 파악키로 하였다.

---

## 컴퓨터 산업협의회 회의

---

본회 컴퓨터 산업 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전자, 대우통신 등 국내컴퓨터 업계 임원들이 모여 최근의 컴퓨터 산업동향, 업계 애로 및 협의사항 등을 협의하고 '98 컴퓨터 산업협의회 업무계획을 보고 하였다. 특히 이날 중앙대학교 홍일유 교수가 나와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 진흥회 3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참가업체 및 장소	담당부서
3. 4	자기미디어 임원 협의회	SKC, 새한미디어, 코오롱, LG전자, SKM, 효성생활산업	부품 산업부
3.4	소비자보호법 개정 관련 업계 대책회의	태광산업, LG전자, 해태전자, 삼성전자, 롯데전자	가전 산업부
3. 5	한·일(큐슈) 산업기술교류 미션 참가	(롯데호텔)	국 제 부
3.5~3.6	전자·재고 부품 할인 판매전	(10층 회의실) 경덕전자 등 85개사	부품 산업부
3. 9	한/EU CPT 대책회의	삼성전관, LG전자, 오리온전기	국 제 부
3.10	자기미디어 임원회의	SKC, 새한미디어, LG전자, 코오롱, 효성생활산업	부품 산업부
3.11	전자의료기기 산업협의회 사장단 회의	메디슨, 대화기기, 한신메디칼, 메리디안 자원메디칼, 중외메디칼, 동아X선기계	정보 산업부
3.12	가전산업 협의회 총회		가전 산업부
3.12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가전업계 회의	(11층 회의실) LG전자, 10명	가전 산업부
3.13	한/EU CPT 협력 회의	LG전자, 오리온전기, 삼성전관	국 제 부
3.13	가전제품 재활용평가 심의회	평가심의위원 및 업체부서장	가전 산업부
3.13	중남미 산업협력 사절단 파견 관련 대책회의	(산업자원부)	국 제 부
3.13	브라질 HOSPITRLAR '98 한국공동관 실무자 회의	정원정밀, (주)진형종합상사, 비트컴퓨터, 메가메디칼, (주)택산 칼스메디칼, 디케이엠	정보 산업부
3.17	스위치·볼륨 분과위원회 회의	경인전자, 스마텔, LG전자부품, 삼원전기, 삼우전자, 제일물산	부품 산업부
3.20	냉장고 표준화 회의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가전 산업부
3.23	일본무역진흥회 본회 내방	Mr. Tadashi Omiya/Executive Director	국 제 부
3.24	전자, 재고부품·장비 할인판매전 평가회의		부품 산업부
3.24	관세 및 부가세제 개선 관련 실무회의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가전 산업부
3.25	컴퓨터산업협의회	삼성전자, LG전자, 삼보컴퓨터 등 7개사	정보 산업부
3.26	스웨덴 투자 개발청 본회 내방	Mr. Kai Mammerich President & CEO of ISA	국 제 부
3.26	통신산업협의회	(팔레스 호텔) 통신산업협의회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정보 산업부
3.26	가전업계 현안협의 회의	삼성전자, 대우전자, 태광산업, 롯데전자, LG전자	가전 산업부
3.27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	무역협회	국 제 부
3.27	청소기 표준화 회의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부품 산업부
3.28	자기미디어협의회 대표자 간담회	SKC, 새한미디어, 코오롱, LG전자, SKM, 효성생활산업	부품 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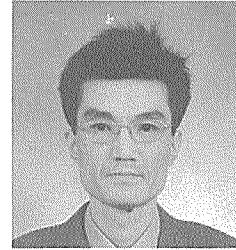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정원정밀공업(주)



대표이사: 김삼조  
주 소: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0-380  
T E L: 491-3435  
F A X: 494-8467  
설립일자: 1980.12.22  
자본금: 15억원  
종업원수: 103명  
주생산품목: X-Ray Griod, X-Ray Cassette,  
현상기, 전산용지

Biospace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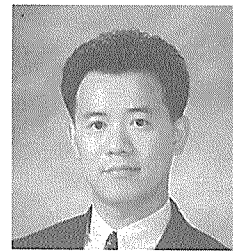
대표이사: 차기철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48  
T E L: 501-3939  
F A X: 501-3978  
설립일자: 1996. 5.15  
자본금: 10억원  
종업원수: 22명  
주생산품목: 정밀 체성분 분석기(의료기)

메가 메디칼



대표이사: 김병장  
주 소: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38  
T E L: (032)674-0121  
F A X: (032)678-5285  
설립일자: 1995.12.12  
자본금: 2억원  
종업원수: 16명  
주생산품목: 이비인후과 진료장치

(주)데이터씨큐어



대표이사: 서영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5-1  
구진빌딩 501호  
T E L: 598-2941  
F A X: 598-2944  
설립일자: 1997. 9.17  
자본금: 2억원  
종업원수: 12명  
주생산품목: 팩스보안시스템, 데이터 보안시스템

## 회원사 창립을 축하합니다

회 사 명	창립연월일
중앙전자공업(주)	1968. 4. 1
동원정공(주)	1971. 4. 1
보암산업(주)	1975. 4. 1
삼화전자공업(주)	1976. 4. 1
골든콘벡터산업(주)	1984. 4. 1
(주)대웅메디칼	1995. 4. 1
(주)크라운정공	1986. 4. 3
기라정보통신(주)	1987. 4. 3
(주)우진전자세라믹	1992. 4. 3
(주)진일특수	1976. 4. 6
(주)로케트전기	1946. 4. 8
보은전자통신(주)	1986. 4.10
(주)코리써키트	1972. 4.11
왕컴퓨터코리아(주)	1986. 4.11
(주)코오롱	1957. 4.12
(주)알·에프·하이텍	1989. 4.12
(주)새한전자	1974. 4.15
국제전열공업(주)	1976. 4.15
(주)대룡전자	1983. 4.15

회 사 명	창립연월일
태림전자(주)	1974. 4.16
(주)금양기전	1985. 4.18
기린전자(주)	1985. 4.18
코발트전기공업(주)	1957. 4.19
한국단자공업(주)	1973. 4.20
(주)대선산업	1982. 4.20
승용전자(주)	1983. 4.20
삼성지이의료기기(주)	1984. 4.20
KCC정보통신(주)	1971. 4.21
진우통신(주)	1977. 4.21
(주)E D	1986. 4.21
한국아이비엠(주)	1967. 4.25
자화전자(주)	1981. 4.25
(주)LG실트론	1983. 4.25
(주)부이·오상사	1981. 4.27
광전자반도체(주)	1988. 4.28
(주)석천	1979. 4.29
(주)한화정보통신	1983. 4.29
(주)산내들인슈	1983. 4.29

##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

▶ 두인전자(주) 사옥이전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6